

다산포럼



박종섭 전 목포대학교 강사교사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민간인과 정규군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내외신 기자도 30여 명이 희생됐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신냉전체제로 회귀하며 국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8일 중앙일보에 실린 '155년 전 팔아 놓고 "美, 알래스카 내나라"...러의 짜질한 으뜸장' 기사는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기사 일부를 옮기면 서방국가들 사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충당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러시아는 155년 전 미국에 판 알래스카 영토를 돌려받겠다고 으뜸장을 놔다. 1867년 당시 러시아는 미국에 720만 달러(현재 가치 1억 6000만 달러, 한화 2100억 원)에 불과한 험잡에 알래스카를 넘겼다. 러시아 내 강경파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의회에서 "미국은 러시아 영토 일부인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미국 등 서방이 자꾸 우리 해외 자산을 압수하는

알래스카의 미래 가치를 예견한 탁월한 리더십

데, 그전에 미국이 러시아에 돌려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트르 톨스토이 의회 부의장도 알래스카 주민을 상대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알래스카에 대해 많은 이들은 전략적 가치와 자원의 보고인 그 넓은 땅을 러시아는 왜 험잡에 미국에 팔았을까 궁금해 한다. 러시아가 이 땅을 미국에 팔았던 시기는 국내외적 상황이 많이 달랐다. 1741년 베링이 이끄는 러시아 탐험대가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알류스카' 즉 '위대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도록 사냥과 모피 정도에 의존할 정도로 산업이 빈약한 땅이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가 흑해 진출 목적으로 영국·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은 터키와 싸운 크림전쟁(1853-1856년)에서 패배하여 남진 정책이 좌절되면서 알렉산드르 2세는 배상금으로 인해 긴급 자금이 필요했다. 또 알래스카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먼 거리여서 통치에 따른 고비용과 행정력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외 영국이 알래스카를 언제 무력으로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매각을 부추기는 원인이었다. 전적으로 오판이었다.

당시 미국의 상황도 캐나다 내의 영국 세력을 견제하는 강박감에 시달리면서 1867년 미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William Seward)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상원은 '수어드 바보짓' '수어드 얼음 상자'라는 조롱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때 수어드는 의

회에서 "현재 가치가 아닌 감춰진 보물을 봐야 한다"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며 설득에 나섰고 제출된 비준안은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수어드는 링컨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치열하게 싸운 경쟁자였고 링컨보다 화려한 정치인이었지만 링컨에게 역전패를 당했다. 패배한 수어드는 미국 전역을 돌며 경쟁자였던 링컨의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선된 링컨은 국무장관에 임명한다. 링컨은 분열된 미국을 통합했고, 수어드는 미래를 내다보며 영토 외연을 넓혔다. 이런 포용과 화해의 리더십은 우리 역사에서 정조와 이란의 만반이 그러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고 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새겨들었으면 한다. 지금 알래스카에는 수어드 항구 도시와 수어드 고속도로가 있다.

미온 오리새끼가 화려한 백조로 변신하기까지는 3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897년 유콘 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미국은 공격 방어용 미사일과 최첨단 무기들을 알래스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소련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적 방패 구실을 한 것이다. 1968년 푸르도만에서는 대형 유전이 발견되면서 대박이 터졌다. 1959년에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면서 한반도 일곱 배 크기인 알래스카는 미합중국의 가장 큰 주가 되었고, 인구는 70만 명(2015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NGO 칼럼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지난 2018년 이운택 연극 연출가의 상습 성추행에 대한 고발이 터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문화과 영화, 음악 등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예술계가 관행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온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이 물 위로 드러나며 예술계의 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들도 함께 일어났다.

이운택 미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광주에서도 연극계 미투가 터져 나왔다. 지난 6월 29일 광주청년유니온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광주연극계 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한 연극자들이 극단 대표와 그의 배우자, 다른 극단 대표 등 연극인 세 명한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3인의 연극인들은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한 배우들에게 소개될 동안 성폭행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를 키워 줄 수 있다'며 자신들이 지역 연극계에서 가진 위치와 지위를 이용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연극계를 떠나야 했다. 비전형 노동자이자, 사회 초년생인 그들에게 소위 '일감'을

관행을 끊어 낼 때, 연극은 계속된다

불모 삼은 위계성 성폭력은 결국 연극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 더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는 이들을 더욱 위축되게 했다. 그사이 가해자들은 광주 연극계에서 탄탄한 경력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경력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박탈하며 쌓아 올렸다. 광주연극협회는 기자회견 후 가해자 3인을 협회 회원에서 제명했고 한국연극협회 또한 가해자들을 제명하며 대한민국연극계 참가 불허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해자 3인의 제명 혹은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극계의 엄격한 상하 관계, 도제식 교육 방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왜곡된 성 윤리 등 성폭력을 눈감고 강화하도록 돕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수많은 성범죄는 하나의 구조가 되었다. 2018년 문제부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전업 예술인의 76%가 '자유 계약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프리랜서나 비전형 노동자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 인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곳도 마땅치 않으며, 특히나 가해자가 권위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창작 활동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뒤야 한다. 더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예비·신진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력에 한 줄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많은 부조리를 참아야 한다.

근로 관계에 있지 않은 예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개

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술계 Y작가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내 사업을 수행하던 중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으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기관이 "권한이 없다"며 별 조치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하여 사회적 파장을 끌고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여전히 예술계의 관행은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다.

80년 오월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민주 광장을 볼 때마다 나는 일종의 무력감을 느낀다. 전두환과 그가 진두지휘한 계엄군들은 광주에서 후퇴했으나 여전히 일상의 민주화를 거스르는 작은 전두환들이 주둔하고 있다. 이런 도시의 풍경은 42년 전 연대와 평등을 외치며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그날의 외침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지난 7월 19일 광주의 여성 예술인 162명이 실명을 내걸고 '광주 연극계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 엄벌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성폭력 생존자의 용기에 무한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법과 제도를 위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조리한 관행들을 예술인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연대로 맞서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이제는 예술계 스스로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의 관행과 관례를 끊어내야 한다.

기고



김동하 소설가

소설가로 활동한 지 십 년 차가 됐다. 내게 소설은 여전히 어렵고 매력적이다. 소설만 그럴까.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 만만한 일은 없다. 나와 당신은 살며 슬한 문제들과 직면해 왔다. 운이 좋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나도 당신도 대부분의 인생 문제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다. 누군가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 말했기에 나와 당신은 하려던 말을 채 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다.

작가로서 내 작품이 더 많은 독자와 만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 경우 흔히 말하는 히트작이 없다. 그래서일까. 데뷔작으로 화제를 불러 모은 작가들을 보면 부럽고 초조하기도 했다. 작가로서의 내 재능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 지난날의 창작 활동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이런 심리 상태가 비단 소설을 쓰는 나뿐일까? 당신도 그렇지 않을까?

소설과 당신

작품 활동을 넘어, 삶에 있어 중심을 잡아 줄 뭔가가 필요했다. 비판적인 감정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될까 두려웠다. 인생도 작품 활동도 기록하지 않던 순간에 내가 내린 결정은 아이러니했다. 나는 아직 한 권의 단행본도 펴내지 않은 시점에 전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내가 전업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전업 작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내게 소설가로서의 탁월한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십대 시절에 접었다.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내게 문학적 재능이 없음을 인정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무모하기만 한 그때의 선택으로 나는 여전히 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들여 쓴 원고를 발표할 때면 발가벗은 기분이었다. 매번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그게 노력의 부족은 아니었는지를 자문하고는 했다. 소설을 쓸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스토리가 막히는 순간도, 인물의 형상화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도 아니었다. 작가로서의 나에게 대한 의심이 들 때였다.

내가 써낸 소설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자문이드는 때. 그럴 때면 어린 시절 소설을 접했을 때를 떠올리고는 했다. 내게 소설은 어떤 의미일까. 내게 당신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십대 시절에는 소설가가 아닌 다른 선택지

도 많다고 짐짓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런저런 다른 일들도 병행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지금껏 놓지 않고 있는 건 글쓰기뿐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해오고 있는 셈이다.

내가 아직 독자이지만 할 때, 내 눈에 비친 소설가들은 인생에 대해 딱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답해줄 것만 같았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에도 정답이 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에두르는 느낌의 소설을 볼 때면 원망하기도 했다.

'인간 실격'은 나를 더 방황하게 했고,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심연에서 웅크리고 있던 나를 더욱 좁은 방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끝에는 늘 당신이 있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경직됐던 마음이 누그러지고는 했다.

사실 나는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대화를 직접 나누는 데는 다소 서툰 사람이었다. 당신처럼 말이다. 그런 내게 소설을 읽는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소통 행위였는지도 모른다. 소설 속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 너머의 당신과 진공상태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다. 실은 소설을 쓰는 행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당신도 부디 나와 같기를, 심연과 좁은 방 너머에서 나와 다시 만나기를, 그리해 당신과 내가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 대화할 수 있기를.

社說

상임위 '역할 분담' 끝내 외면한 지역 의원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위원회 편중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및 미래 전략 산업과 관련된 일부 상임위에는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결과 전남 국회의원 열 명 가운데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다섯 명이 임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다. 전남 지역 의원 절반이 농해수위에 쏠린 것은 농어촌 지역구 특성상 민원 해결이 용이한 위원회를 선택한 결과이다. 또한 이계호·김원익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희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배치됐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비교적 골고루 분산됐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정무위, 송갑석 의원은 국방위, 이병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위, 이형서 의원은 행정안전위, 이윤빈 의원은

산자위에 배정됐다.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은 각각 교육위와 산자위 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제는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미래 산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해 지역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임위가 일곱 곳에 이른다.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조성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서는 의원들 간 소통과 전략 부재가 꼽힌다. 대선 패배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치구 경계 조정 무산... '균형 발전' 헛구호였다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민선 8기 들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첫 공식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회 의원들 간 이해가 엇갈려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정 광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은 엇그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개편 회의'를 열었지만 일부 정치권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회의에서 한 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조정안에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편입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지난 2018년 행정구역 개편 용역과 2000년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에서 제안한 조정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인구·복지 등에 기반해 경계 조정의 새 틀을 짜기로 합의했다.

경계 조정은 날로 커지는 자치구 간 인구 편차와 그에 따른 행정·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북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동구의 인구 때문에 남구를 합쳐 '동남 갑'과 '동남 을'이라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정치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올해 안에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조속한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임박하면 정치적 환경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 조정의 대원칙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 및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각 자치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응책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세기 초 영화감독들은 새로운 발명품인 필름과 카메라, 영사기가 조합된 활동사진의 특성을 활용해 무한한 상상력을 펼쳤다. 프랑스 조르주 멜리아스는 1902년 최초의 SF영화인 '달 세계 여행' (Le Voyage dans la Lune·21분)을 제작해 상영했다. 쥘 베른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영화에서 인간은 대포알 같은 우주선에 탑승하고, 우주선은 커다란 대포를 이용해 발사된다.

1929년 독일 프리츠 랑 감독은 영화 '달의 여인' (Frau im Mond·156분)을 제작했다. 격납고에서 발사장으로 레일을 따라 이동

이었다. 유튜브에서 찾아 감상할 수 있는 두 흑백 무성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달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이다. 1968년 12월 발사된 아폴로 8호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필름에 담으면서 상상이 실현됐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용 궤도선 '다누리호' (KPLO)가 다음 달 3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특히 연료절감을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을 이용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 (BLT)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 궤도에 도착하기까지 13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 천문학자 칼 E. 세이건(1934-1996)은 '코스믹 커넥션-우주에서 본 우리'에서 "우주 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지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 준다"고 했다. '다누리호'가 오는 12월 초 달 궤도에 진입해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 신화 속 달 세계의 어떠한 맨얼굴을 보여 줄지 자못 궁금하다. /송기두 예향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